

조선족 인권유린 '이젠 그만'

임금 못받고 강제추방 항의 자해

시민단체 '국내체류자 처우개선' 촉구

7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0개 사회단체가 국내 조선족의 처우개선과 불법체류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공공연한 사실일만큼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려왔다. 물론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이 문제에 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선족들에게 돌아간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강제추방 뿐이었다.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해 24일 한 조선족 동포가 우리정부의 강제추방 조치에 항의해 자신의 배를 면도칼로 그어 20여 바늘을 깨는 중상을 입은 사건 때문이었다. 이 조선족 동포는 밀린 임금 36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다음날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었다. 밀린 돈을 받고 중국에 가겠다고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부뿐이었다. 인권유린 사례는 이뿐만 아니다. 조선족보호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은 한 거울에도 흉경 죄수복을 걸치고, 운동은 커녕 신문도 보지 못하는가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히고 있다. 사기나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조선족 동포가 상당수에 이르는 사실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조선족에 군림하고 이들을 멸시하는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과 사업가들의 천박한 행태도 비난받고 있다.

최근 중국 조선족의 잇따른 한국인 납치사건은 이처럼 조선족을 이 민족 대하로 차별하고 경계해 온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 재외동포법 제정 때 해택 대상에서 조선족 동포를 제외하는 것은 이들의 울분을 극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다행히 8일 법무부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쥐준 돈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체불임금 문제 등이 해결될 때까지 강제추방을 면하게 해주기로 하는 등의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환영할만하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현상천하 유아독존'을 실현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낱 미물에 대해서도 그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생명이 누려야 하는 존엄만을 귀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다.

또 (화엄경)에서는 "은갖 사물은 특질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실체가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본래 청정한 까닭에 평등하다. 유와 무가 불이(不二인) 까닭에 평등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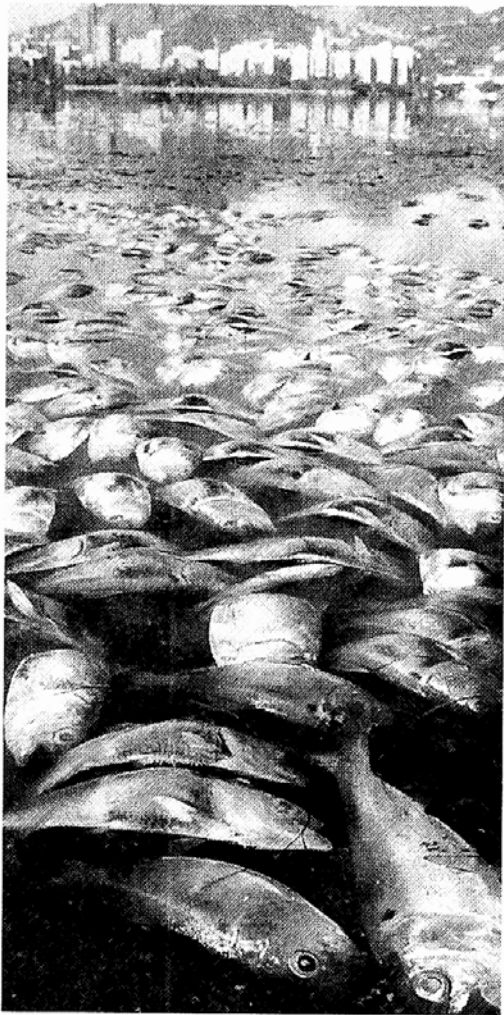
조선족 동포는 우리와 닮은 것이 아니라 한 핏줄이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은 불교의 근본사상이며 민족주의의 기본이다. 지금부터라도 동포들을 끌어안고 감싸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살아있는 절약교육

교복 물려주기 '봄'

교복값을 절약하는 운동이 전국 중·고교에서 줄을 잇고 있다. 서인천고교와 대전문지중학교가 시중가보다 절반이나 싼 값에 교복을 제공해 주는 공급업체를 선정했는가 하면 서울 한양대 사범대 부속여고생들은 지난해 11월 졸업식 후 교복 1백20벌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도. 또 경기 수원 곡성중 등 전국 2백30개 중학교에서 2만2천여벌을, 진각중 종합학교인 진선여고 등 1백76개 고등학교가 1만9천여벌을 후배들에게 각각 전달했으며, 대전시 교육청이 지난해 벌인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도 중·고생 1만9천6백여명(전체의 44%)이 참여해 2만2천여벌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었다.

불교는 예로부터 절약의 미덕으로 삼아왔다. 그렇기에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며,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교복 물려주기'야말로 물질만능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인 셈이다.



'호수를 덮은 울고기 때죽음' 수질오염으로 브리질 리우데 자네이루 인근 로드리고페레이라스 호수의 울고기 수천마리가 6일 때죽음을 당한 채 수면 위에 떠돌았다. 비로 옆에서 리우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던 그때였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과 무성의를 생생히 느끼게 한다.

교황청 '교회의 범죄' 고백

십자군 원정·유대인 박해 등 과오 인정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교회가 인류에게 범했던 각종 과오를 공식 인정할 지난 5일 로마 교황청의 발표는 일단 용기있는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황청은 '회개와 화해:교회의 과거범죄'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십자군 원정으로 인한 많은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의 학살, 유대인 박해, 중세에 자행된 각종 고문형, 신대륙의 원주민 말살에 앞장선 일 등을 세세히 밝혔다.

교회 스스로 '범죄'라고 부른 기독교의 과거 역사는 이처럼 다른 종교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공격성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유대인 쪽에서는 교황청의 참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우리의 역사에도 기독교와 얽힌 매듭들이 있다. 국내 개신교 지도자 200여명이 지난 97년 마틴 루

터의 종교개혁 480돌을 맞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와 유신정권 지지, 5·6공 정권에 대한 협조 등을 회개하는 '한국교회합회록'을 발표한 바 있다.

교황청의 참회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종단별 사무국장 법현섭님은 "일제 때 우리나라 천주교 책임자로 온 미탈주교가 일제의 한국침략을 정당화한 것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한국불교는 우리 민족사에, 세계불교는 세계사에 잘못된 일이 없는지 곰곰이 되돌아 참회할 것이 있으면 기독교처럼 마땅히 참회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업계 '서비스 뒷전'

소비자 피해상담 1위

옛날 어떤 상인이 남에게 돈 반 푼을 빌려서 오랬동안 갚지 못하였다. 그는 빚을 갚으려 떠났다. 그 앞길에는 큰 강이 있었다. 갠갠으로 두 냇을 주어야 건너갈 수 있었다. 그는 빚을 갚으려고 갔으나 때마침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강을 건너 돌아오면서 또 두 냇을 써 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반 푼 빚을 갚으려다 도리어 네 냇의 돈을 손해보고 말았다. 진 빚은 극히 적었으나 손해는 아주 많이 결국 여러 사람들의 비웃음만 당하였다.

(백유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휴대전화 업체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될만하다.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는데 비해 서비스는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99년에 피해해결을 의뢰받은 분야 가운데 휴대전화 관련 문제가 12.4%(1714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힌 데서도 이 같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더욱이 이 수치는 98년의 302건보다 5.7배나 증가한 것이고, 휴대전화 관련 상담건수도 8267건에서 1만433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난 상태. 하지만 휴대전화 업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필요한 사람이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다.

사람들의 비웃음만 산 그 상인은 작은 명예와 이익을 구하다가 도리어 큰 손실을 보았다. 바른 상도로를 장사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반드시 괴로움의 갈증을 받게 된다는 것을 휴대전화 업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새천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은누리 자비 광명(光明)으로 두루하신 부처님!
21세기를 향하여 떠오르는 밝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현대결혼연구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 지향적인 혼인문화를 새로운 각도로 구상하고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더 큰 사랑으로 현대를 지켜봐 주십시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골드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드폰 : 018) 277-5592

누구나 바로 그날부터 기증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레이키(Reiki)법을 전수 받으십시오.

레이키법은 기공수련을 한 일이 없는 분도 그날부터 기증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세계 유일의 기증능력자(氣治力능력자·氣贈능력자) 양성법입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플먼트등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기증능력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플먼트는 소주천을 여러 해씩 수련하지 않고도 바로 대추천의 우주 기운을 받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레이키 에너지(氣=우주 생명에너지=빛=파동=자비=사랑)는 어플먼트를 받은 사람의 손끝을 통해서만 흐르고, 생활환경을 포함하여 사람, 동식물, 생활용품, 부처님 형상에너지, 물품, 광물 등 만물에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 레이키 요법과 여타의 기증능력법의 다른점
① 자기 자신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셀프힐링의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
② 원격 치료는 식은 죽 먹기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③ 단 한 가지 치료방법으로 수 천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어 치료 방법이 간소하다. 따라서 누구나 그날로 치료법을 배울 수 있다.
④ 환자 치료에 모두가 무관심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치료자의 기가 소모되지 않는다.

·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내(박희준)의 자격
저 박희준(朴熙俊)은 지난 20년간 기, 정, 신, 세계 분야의 번역 저술가로 활동해 오는 동안 10권 이상의 저서와 100권 이상의 저서를 냈지만 기증능력자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1997년부터 레이키법을 만나 외국의 여러 레이키스쿨에서 다채로운 레이키법을 전수 받은 결과 이제는 글자의 능력 전수 능력을 가진 세계에 손색없는 레이키 마스터가 되었습니다.이제는 이런 토대위에서 한국적 레이키법을 독자적으로 체계 세우는 일을 차근 차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레이키법을 전수받기를 권합니다.
▶ 모든 생활인, 모든 의료, 건강 사업 종사자
▶ 만성병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 정신적·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분

◎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2-5일소 70만원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연구원(한국레이키요법연구회)
전화 : 02)720-5682 /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7가 89 피어선빌딩
지도자: 박희준(우스아레이카마스터·카루아레이카마스터)번역저술가
☎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순수한 경만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한국신기공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운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백파 처단) 특별보시!

정음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자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수백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인쇄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02)2216-0307, (011) 471-1996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정종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

신비의 기도처

육지속의 섬 국내유일의 영험도량 **금수산 천진사**
삼천배 정진 기도 동참안내

일시
· 매월 2째주 토요일 저녁 8시 - 새벽 5시 (철야정)

위치
· 충북 단양 금수산 (단양팔경 구단봉 맞은편)

교통편
· 서울(동서울) ~ 단양 매시 고속버스 정시운행
· 단양 - 천진사 셔틀버스 운행
* 참가하실 분은 전화 연락 바랍니다.

문의 0444) 423-2083
011) 786-9379

* 4째주 토요일 9시 - 12까지 대다라니 주력기도 합니다.